

상해진단서 신고센터의 운영

인천시 치과의사회 총무이사
의학박사 이 정 호



인천시. 치과의사회에서는 지난 74년도 부터 상해진단서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현재에도 성공리에 운영하고 있다. 신고센터의 목적이라 할까 그 취지와 의의를 찾는다면 상해환자를 진료하고 상해진단서를 작성하는데 있어 환자가 이곳 저곳 의원을 찾아 다닐 경우 회원간의 서로 엇갈린 소견으로 인하여 환자에 대한 불신감은 물론 회원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경우가 있게 된다. 또한 환자로 하여금 이중진단서를 발부할 수 없겠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인천시 치과의사회에서는 상해진단서 용지를 회에서 인쇄하여 회원에 배부하여 주고 진단서용지 내용에는 증전결과 동일하나 다른 점은 치과의사회 마—크를 중앙에 삽입하였고 병록번호는 각 의원의 chart No.이지만 연번호는 신고센터에서 신고되는 순서대로 부여하여 주는 번호이고 진단서용지 열단에 "본 진단서의 연번호는 인천치과의사회를 경유한 등록번호임"이란 단서를 삽입하였다. 또한 운영면에서 보면 첫째 상해진단서를 발부하지 않더라도 상해환자를 초진한 경우에는 즉시로 신고센터에다 보고하여 정말 초진인가의 여부를 알아본다. 그리고 신고센터에서는 날자, 신고한 의원, 상해환자의 인적사항, 상해부위, 치료기간을 기입하여 둔다. 그리고 진단서를 작

성할 시에만 연번호를 불러준다.

둘째로 이중으로 신고가 들어올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가급적이면 초진한 의원을 알려주면서 초진한 의원에서 진단서를 발부토록 하여 준다.

신고센터의 운영면에서 잇점을 찾는다면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첫째 환자로 하여금 진단서를 이중으로 발부하지 못하겠끔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둘째 환자가 이곳 저곳 다녀봐도 진단기일이 각 의원마다 서로 다르게 될 수 없으며 더욱이 진단서의 권위가 있게 되고 환자로 하여금 의사에 대한 신뢰감을 갖게 된다. 셋째로 회원간에 진단서로 인한 이견이 생길 수가 없고 만약 이견이 있어도 협회에서 관여하여 서로 해결하기 쉽게 되며 오히려 다른 의원에 갔던 환자인 경우 초진한 의원으로 보내게 되는 아량과 협조가 있게 된다. 넷째로 초진한 의원에서 진단서를 발부 않는다 해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타의원에서 신고센터에 문의하고 신고와 동시에 진단서를 발부해도 불평과 이의가 있을 수 없고 자기 잘못으로 이렇다할 감정이 없게 되며 오히려 신고 정신이 뚜렷하여진다. 다섯째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에서도 협회에서 발행한 진단서 용지로 된 것을 접수할 때 신뢰성을 갖게 된다는 평을 받았고 더욱이 상해환자 신고센터 운영의 취지

를 알려주면 치과의원에서 발부한 진단서에 대해서는 확실할 수가 있게 된다. 여섯째로 진단기일이 애매한 경우에 신고와 동시에 서로 문의하고 의논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된다.

이러한 운영의 잇점에는 각 의원에서 신고를 철저히 해 주므로서 이루어지게 되고 서로의 이익을 찾게 되는데 어느 정도 제도에 오르면 자연히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를 알하면 오히려 고립감과 불안감이 있다는 평을 갖게 되었다. 신고센터 운영의 난점은 신고서에 전화상으로나 또는 직접 와서 하는 경우인데 주로 전화로 신고를 하는 경우다. 24시간 1년 12개월 년중무휴로 접수할 수 있는 장소라야만 된다. 인천시의 경우는 낮에는 별무하지만 야간에는 가정에서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전부 접수 요령을 가르켜 주고 연번호를 불러주고 기입할 수 있도록 주지시켜주고 신고접수일지장을 눈에 잘 띄우는 전화기 열에다 고정 배치시키고 불펜을 끼워두고 항시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주로 아침과 야간에 신고가 많은데 접수하는 곳은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많으나 우리 회원의 발전을 위해서는 계속 많은 신고가 올수록 즐겁기만 하다.

차제에 배치협회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몇년 전에 인쇄물로 배

부한 치과영역의 상해진단기일이 있는데 그 내용을 더 추가해서 가급적이면 전국 회원이 매배한 환자를 당면했을시 환자에게 뚜렷이 진단기일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바란다. 진단 기일이 똑같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모호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보면 상해로 인하여 의치가 분실된 경우나 파손된 경우, 보

철물만이 파손된 경우, 냉은과민 및 동통은 호소하지만 동요가 없는 경우, 치관부위가 치주노출이 안되고 약간 좌절되었으나 동통과 동요가 없는 경우, 주로 전치부위의 labial surface의 lining fracture 인 때 동통은 있으나 동요가 없는 경우, 특히 전에 타박상으로 변색을 초래한 치아에 또 상해를 입어 동통과 동요가 있는 경우, 상기 열

거한 상해건은 X-ray상으로도 뚜렷한 관독이 없으며 이런 경우에는 주로 의사의 주관에 따라 진단기일이 정하여지는 것이지만 더 세밀히 구분해서 진단기일을 명시하여 주면 전국적으로 치과의원에서 발부하는 진단기일은 어느 정도 통일성을 보게 되며 더욱 신뢰감을 갖게 되리라 믿는다.

◇ 마크 圖案 公募 ◇

＝東西醫療器産業社＝

- 公募內容：1)醫療器生産公社를 象徵하는 內容
2) 進取的인 內容
3) 國內外에 잘 適應되는 內容

賞 金；當選作 一篇 參萬圓整

應募範圍；全 齒科人

磨勘日字；1977年 1月 31日 限

送 稿 處；東西醫療器産業社・瑞一齒材商社

우편번호 100

서울 中區 南大門路 5가 6-24

(22) 8291 · (22) 7275